

Sport Industry

SI포커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내 스포츠산업 품목 수출·입 동향분석 및 시사점 :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고 경 진(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I 국내 스포츠산업 수익창출 구조
- II 스포츠산업 품목별 전체 수출·입 현황
- III 주요국 스포츠산업 품목별 수출·입 현황
- IV 시사점 및 결론

요 약

이번 분석은 우리나라 스포츠산업 품목의 주요 교역국(미국,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 관련 품목의 무역현황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은 최근 3년(2016-2018년) 간 약 2.5%의 연평균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 산업규모는 약 78조 원에 도달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산업규모 중 수출비중은 2.1%에 머물고 있어 전체 규모대비 수출실적은 미미한 설정이다. 특히 지속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협소한 국내 내수시장과 글로벌 스포츠 용품업체의 국내 시장지배력을 감안할 때 향후 국내 스포츠산업은 성장여력이 부족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관련 대안으로써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국내 스포츠산업 품목의 수출증대가 중요하며 이는 국내 스포츠산업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의미 있는 지향점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최근까지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산업 품목별 수출·입 현황 분석은 부족한 상황이며 이번 분석을 통해 국내 스포츠산업 품목의 무역현황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분석방법으로는 최근 5년(2015-2019) 간 스포츠산업 품목 전체 교역량 및 주요국 간 스포츠산업 품목 교역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코드) 기반 품목 수출 및 수입금액을 활용하였다. HS코드 기반 분류체계의 경우 스포츠용품을 제외한 스포츠의류와 스포츠신발의 경우 포괄적인 의류 및 신발 품목에 포함되고 있어 세부코드를 기반으로 관련 품목들을 추출하여 적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과의 스포츠산업 품목 무역수지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스포츠신발에서는 최근 5년 간 흑자를 지속하고 있고 미국은 우리나라 스포츠산업 품목 전체 수출액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고 소비여력이 여전히 큰 시장인 만큼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과의 무역수지는 최근까지 큰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그 적자폭은 둔화되고 우리나라 스포츠산업 품목의 수출증가율은 지속 상승추세에 있다. 셋째, 일본의 경우 전체 스포츠의류와 스포츠신발에서는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골프채 등 관련 용품에서는 대규모 적자를 시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의 수출증대는 필연적인 만큼 앞서 제시한 교역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민간의 경쟁력 강화노력과 이를 돕는 정부의 협응 체계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I. 국내 스포츠산업 수익창출 구조

1. 내수시장 편향성

관세청(2020)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지난 5년 간 우리나라 수출금액 총액은 약 2조 7,429억 달러이며 2000년 이후 꾸준히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하고 있는 무역강국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경제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기존의 1차 산업에서 제조업, 자동차, 건설, 중공업 등을 중심으로 한 2차 산업구조로 생산체제를 전환하면서 부족한 내수시장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자 정부주도로 적극적인 수출주도 정책을 추진하였다. 부존자원의 부재로 인해 제품생산을 통한 수출을 대안으로 삼고 민관이 협력하여 이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 교역량 기준 세계 5위권의 수출대국에 위치하고 있다. 비록 2000년대 이후 국내 인건비 상승 등 생산원가 증가로 인해 국내 제조업 생산거점이 중국, 동남아시아 등 해외로 다수 이전하였고, 국내 서비스산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나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여전히 약 35%를 유지하고 있다(한국은행, 2020). 또한, 정부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진출을 독려하고자 해외인증 획득, 무역금융, 수출기업 육성사업 등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0). 즉, 수출 진작을 통한 경제성장 및 산업육성이라는 정책적 목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최근 3년 간(2016-2018년) 간 연평균성장률 약 2.5%를 나타내고 있는 스포츠산업에서도 수출증대는 주요 현안으로 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2020)의 「스포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스포츠산업 매출액 규모는 약 78조 원으로 최근까지 지속성장하고 있으나, 전체 수출비중은 2.1%에 불과한 실정이다. 세부 업종별로는 스포츠시설업 0%, 스포츠용품업 4.3%, 스포츠서비스업 0.5%로 각각 집계되었다. 이중 업종 특성상 수출이 사실상 어려운 스포츠시설업을 제외하더라도 산업 전체규모 대비 수출비중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협소한 국내 내수시장과 글로벌 스포츠 용품업체의 국내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상기할 때 향후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은 향후 성장둔화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어 이와 관련한 대안으로써 국내 스포츠 용품의 수출확대는 중요한 아젠다로 간주할 수 있다.

2. 해외시장 진출 노력과 무역현황 분석의 필요성

최근 내수 소비시장 의존적이었던 국내 스포츠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정부차원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신흥 경제성장권역으로 평가 받는 아세안 시장을 대상으로 스포츠시설업과 스포츠서비스업 진출을 타진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국내 스포츠산업체 중 글로벌 시장진출 여건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통합지원체계를 제공하는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스포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수출상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내수 편향적인 산업수익구조를 개선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점진적인 해외진출 확대에 앞서 주요국을 대상으로 스포츠산업 품목별 수출·입 현황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번 분석을 통해 국내 스포츠산업 품목의 교역수준 진단 및 시사점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 간 스포츠산업 관련 품목 전체 교역량을 우선 살펴보고 주요 수출국(미국, 중국, 일본)에 대한 국내 스포츠산업 품목별 수출·입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코드)를 기반으로 관세청(2020)에서 제공하는 「수출입 무역통계」를 활용하여 스포츠산업 품목별(스포츠용품, 스포츠의류, 스포츠신발) 교역현황을 수집, 분석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품목들은 HS 코드 상 세부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분석의 편의를 위해 스포츠용품, 스포츠의류, 스포츠신발 각각의 총합을 기준으로 다루었다. 분석을 통해 주요 무역상대국 간 스포츠산업 재화의 무역수지 변화를 살펴보고 해당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서는 각국의 통관절차를 거친 유형의 산업재화 교역량만을 집계·공표하며 한국은행의 서비스무역수지의 경우 가공서비스, 운송, 여행 및 건설 등으로 구성되어 스포츠서비스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무역수지 추출이 어려운 관계로 스포츠서비스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 스포츠산업 품목별 국제통일상품체계: HS코드

HS코드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제정한 「HS국제협약」에 의거하여 각국 세관의 관세 행정,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간 통일된 공용 상품분류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다음백과, 2020). 동일한 원재료 또는 상품이나 개별 국가 내에서 부여하는 명칭이나 분류체계가 교역대상국과 다를 수 있으므로 관세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통관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었다.

현행 HS코드는 총 97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스포츠용품 관련 코드는 95번(완구·운동용품), 스포츠의류는 61번(의류: 편물), 62번(의류: 편물 제외)이며 스포츠신발은 64번(신발류)에 해당된다. HS코드 61번과 62번은 모든 의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스포츠 관련 품목은 트랙슈트, 수영복, 스키복 등이다. HS코드 64번도 모든 신발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스포츠신발은 세부코드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스포츠산업 품목별 국제통일상품체계(HS코드)

품목코드	품목	세부 항목
9506	스포츠 용품 (운동용품)	스키, 수상종목 육구, 골프채(완제품), 골프공, 골프채 부분품 등 기타, 탁구용구, 테니스 배드민턴 라켓 및 공, 공(공기주입식), 스케이트 및 롤러스케이트, 운동체조 육상 경기용품
6112	스포츠 의류 (트랙슈트 수영복 스키복)	편물
6211		편물 제외
6402	스포츠 신발	고무 플라스틱 소재
6403		가죽 소재
6404		방직용 섬유재료

II. 스포츠산업 품목별 전체 수출·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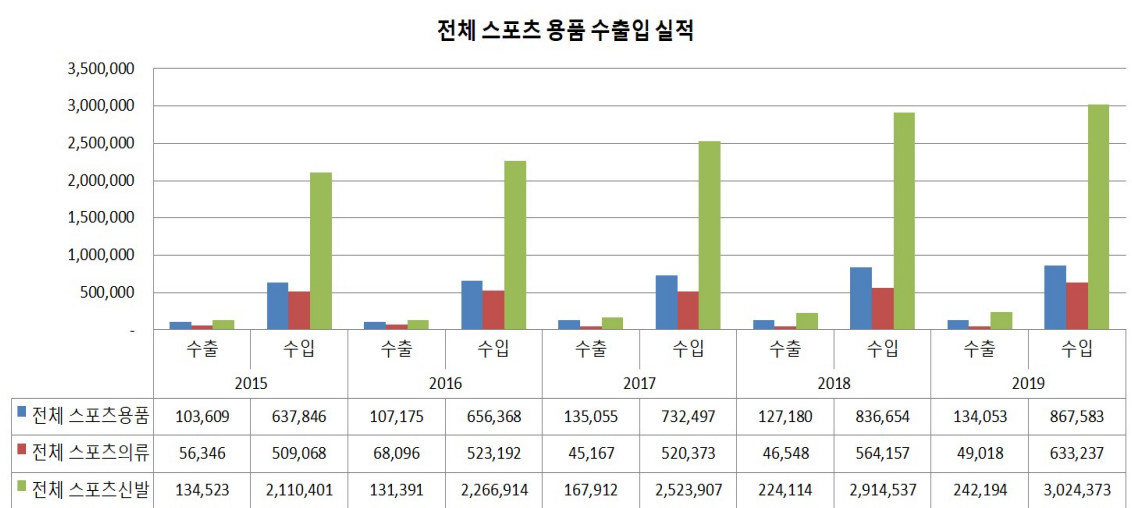
스포츠산업 품목별 전체 수출입 금액을 살펴보면 최근까지 적자로 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스포츠산업 품목별 총 수출금액은 4억 2,526만 달러이며, 총 수입금액은 45억 2,519만 달러로 집계되어 40억 9,992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분석 기준연도인 2015년 무역수지 적자는 29억 6,283만 달러를 기점으로 2019년까지 무역수지 적자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품목별로는 2019년 기준 스포츠신발의 무역수지 적자가 27억 8,218만 달러를 기록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스포츠용품의 무역수지 적자가 7억 3,353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스포츠의류의 무역수지 적자가 5억 8,421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표 2> 스포츠산업 품목별 전체 수출·입 실적

(단위 : USD 1,000)

품목	2015			2016			2017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전체	용품	103,609	637,846	-534,237	107,175	656,368	-549,192	135,055	732,497	-597,442
	의류	56,346	509,068	-452,721	68,096	523,192	-455,096	45,167	520,373	-475,206
	신발	134,523	2,110,401	-1,975,880	131,391	2,266,914	-2,135,522	167,912	2,523,907	-2,355,995
	합계	294,478	3,257,315	-2,962,838	306,662	3,446,474	-3,139,810	348,134	3,776,777	-3,428,643
품목	2018			2019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전체	용품	127,180	836,654	-709,474	134,053	867,583	-733,530			
	의류	46,548	564,157	-517,610	49,018	633,237	-584,219			
	신발	224,114	2,914,537	-2,690,422	242,194	3,024,373	-2,782,180			
	합계	397,842	4,315,348	-3,917,506	425,265	4,525,193	-4,099,929			

전체 스포츠용품 수출입 실적



<그림 1> 전체 스포츠산업 품목(용품, 의류, 신발) 수출·입 실적

Ⅲ. 주요국 스포츠산업 품목별 수출·입 현황

1. 미국

2019년 기준 미국은 우리나라의 2위 교역국으로 전체 수출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Tradingeconomics, 2020). 미국은 거대 아웃도어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등 스포츠용품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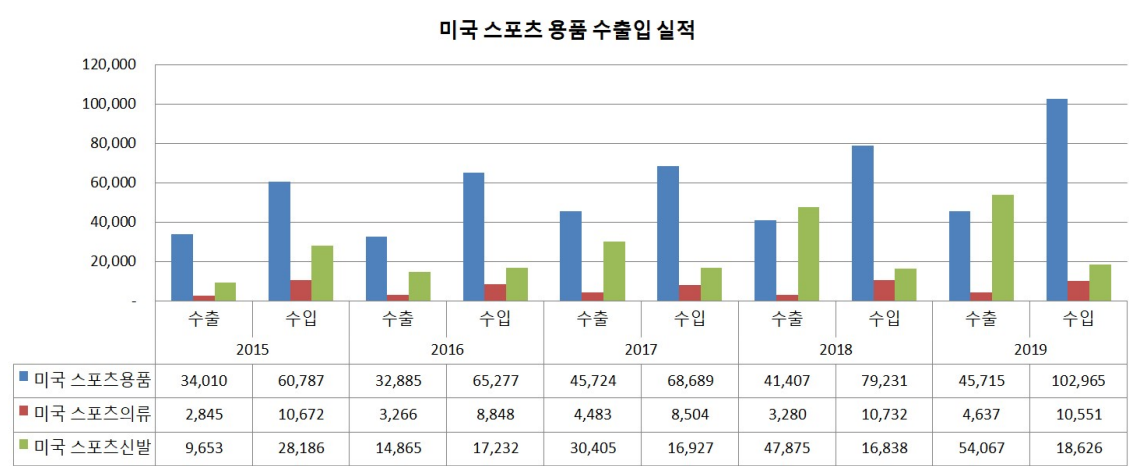
런 소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국가이다. 2019년 우리나라와 미국 간 품목별 전체 수출·입금액을 살펴보면 수출 1억 441만 달러, 수입 1억 3,214만 달러이다. 2019년 무역수지는 2,772만 달러의 적자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스포츠신발은 수출액이 수입액을 상회하여 3,544만 달러의 무역수지가 흑자가 발생하였으나 스포츠용품과 스포츠의류에서는 무역수지 적자가 나타났다. 최근 5년(2015-2019년) 간 스포츠산업 품목 전체 무역수지 적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감소율은 연평균 12.0%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스포츠산업 품목별 수출·입 실적(미국)

(단위 : USD 1,000)

품목	2015			2016			2017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미국	용품	34,010	60,787	-26,778	32,885	65,277	-32,391	45,724	68,689	-22,965
	의류	2,845	10,672	-7,827	3,266	8,848	-5,582	4,483	8,504	-4,021
	신발	9,653	28,186	-18,533	14,865	17,232	-2,366	30,405	16,927	13,479
	합계	46,508	99,645	-53,138	51,016	91,357	-40,339	80,612	94,120	-13,507
품목	2018			2019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미국	용품	41,407	79,231	-37,825	45,715	102,965	-57,250			
	의류	3,280	10,732	-7,452	4,637	10,551	-5,913			
	신발	47,875	16,838	31,036	54,067	18,626	35,443			
	합계	92,562	106,801	-14,241	104,419	132,142	-27,720			

미국 스포츠용품 수출입 실적



<그림 2> 미국 스포츠산업 품목(용품, 의류, 신발) 수출·입 실적

2.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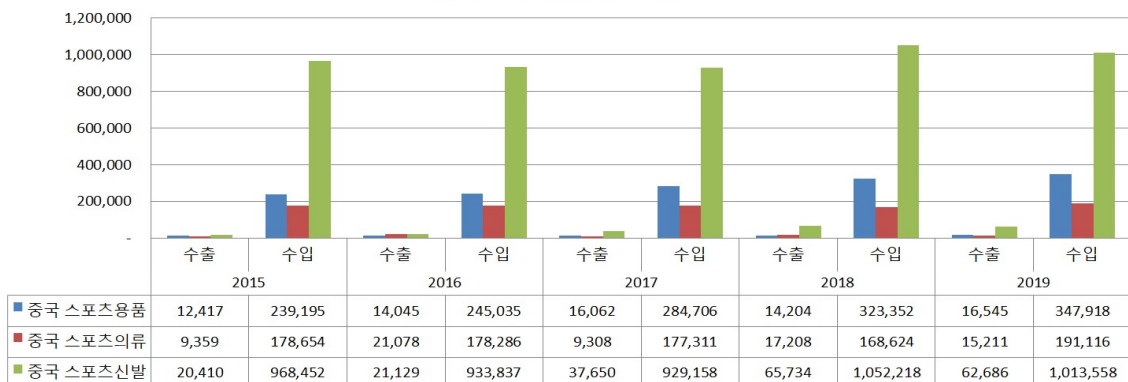
2019년 기준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교역국이다 (Tradingeconomics, 2020). 막대한 교역이 성행하는 국가답게 스포츠용품과 의류 부문에서도 수출·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우리나라와 중국 간 품목별 전체 수출·입금액을 살펴보면 수출 9,444만 달러, 수입 15억 5,259만 달러이다. 2019년 무역수지는 14억 5,814만 달러로 적자수준이 상당한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스포츠신발의 무역수지 적자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9억 5,087만 달러), 스포츠용품의 경우 무역수지 적자가 3억 3,137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최근 5년(2015-2019년) 간 스포츠산업 품목 전체 무역수지 적자 연평균증가율(CAGR)은 2.1%로 확인되었다.

<표 4> 스포츠산업 품목별 수출·입 실적(중국)

(단위 : USD 1,000)

품목	2015			2016			2017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중국	용품	12,417	239,195	-226,778	14,045	245,035	-230,990	16,062	284,706	-268,645
	의류	9,359	178,654	-169,295	21,078	178,286	-157,209	9,308	177,311	-168,003
	신발	20,410	968,452	-948,042	21,129	933,837	-912,708	37,650	929,158	-891,507
	합계	42,186	1,386,301	-1,344,115	56,252	1,357,158	-1,300,907	63,020	1,391,175	-1,328,155
품목	2018			2019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중국	용품	14,204	323,352	-309,148	16,545	347,918	-331,372			
	의류	17,208	168,624	-151,416	15,211	191,116	-175,905			
	신발	65,734	1,052,218	-986,485	62,686	1,013,558	-950,872			
	합계	97,146	1,544,194	-1,447,049	94,442	1,552,592	-1,458,149			

중국 스포츠 용품 수출입 실적



<그림 3> 중국 스포츠산업 품목(용품, 의류, 신발) 수출입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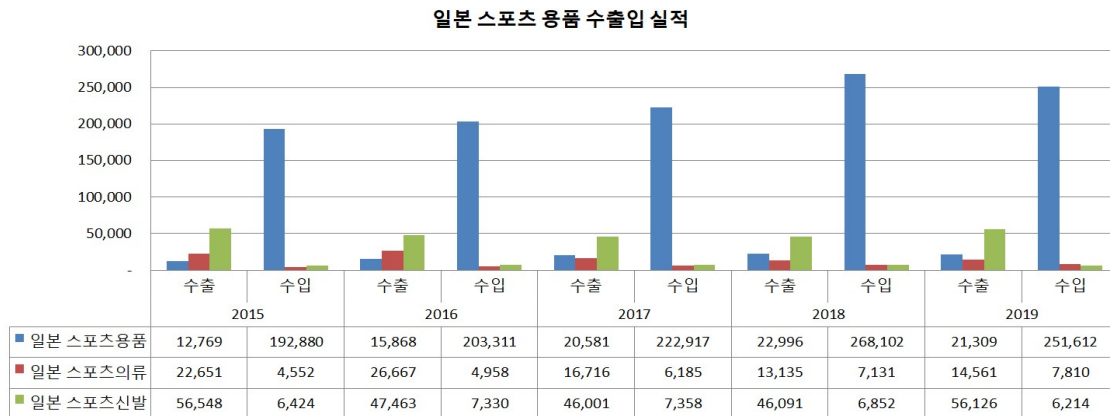
3. 일본

일본은 전통적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와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는 국가이며 풍부한 내수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수출이 일어나는 국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5대 무역국 중 유일하게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국가이다. 2019년 우리나라와 일본 간 품목별 전체 수출·입금액을 살펴보면 수출 9,199만 달러, 수입 2억 6,563만 달러이다. 2019년 무역수지는 1억 7,364만 달러로써 적자를 시현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스포츠신발은 4,991만 달러로 무역수지가 흑자로 나타났으며 스포츠의류 역시 무역수지가 675만 달러로 무역수지가 흑자로 확인되었다. 스포츠용품에서는 타 품목과는 달리 무역수지 적자(2억 3,030만 달러)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15년 이후 스포츠신발과 스포츠의류 부문에서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스포츠용품은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표 5> 스포츠산업 품목별 수출·입 실적(일본)

(단위 : USD 1,000)

품목	2015			2016			2017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일본	용품	12,769	192,880	-180,111	15,868	203,311	-187,443	20,581	222,917	-202,336
	의류	22,651	4,552	18,100	26,667	4,958	21,709	16,716	6,185	10,531
	신발	56,548	6,424	50,124	47,463	7,330	40,135	46,001	7,358	38,645
	합계	91,968	203,856	-111,887	89,998	215,599	-125,599	83,298	236,460	-153,160
품목	2018			2019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일본	용품	22,996	268,102	-245,106	21,309	251,612	-230,303			
	의류	13,135	7,131	6,004	14,561	7,810	6,750			
	신발	46,091	6,852	39,239	56,126	6,214	49,912			
	합계	82,222	282,085	-199,863	91,996	265,636	-173,641			



<그림 4> 일본 스포츠산업 품목(용품, 의류, 신발) 수출·입 실적

IV. 시사점 및 결론

1. 시사점

이번 분석은 스포츠산업 품목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최근 5년(2015-2019)간 무역현황을 대상으로 품목별로 수출 및 수입액, 전체 무역수지를 확인하였다. 분석품목은 HS코드 분류에 따른 스포츠관련 품목으로써 이해를 돕기 위해 스포츠용품, 스포츠의류, 스포츠신발로 연도별로 집계하여 제시하였다. 주요 수출국 무역현황 종합분석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과의 스포츠산업 품목 무역수지는 최근까지 큰 적자로 일관하고 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우 그 적자 폭이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수출 및 수입총액기반 무역적자 금액은 양국 간 스포츠산업 품목 교역수준을 감안할 때 상당히 큰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은 낮은 인건비 등 저렴한 생산원가로 무장한 제품의 국내 시장유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전체 수입금액 대비 소액이나 우리나라 스포츠산업 품목의 연도별 수출액 증가율이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예상컨대 우리나라의 고품질 스포츠용품의 현지 수출증가로 판단되며 이는 가격수준과 관계없이 양질의 스포츠용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계층에 의한 수요로 추정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와 미국 간 스포츠산업 품목 무역수지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특정 품목에서는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해당 품목은 스포츠신발은 최근 5년 간 흑자를 지속

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생산비 절감목적으로 생산거점이 해외로 설치되었다는 가정 하에 국내 아웃도어 신발 등 관련 용품의 현지 수출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스포츠산업 품목 수출액 중 미국의 비중이 약 25%를 차지하고 있어 소비여력을 갖춘 가장 큰 시장임을 알 수 있어 이에 대한 꾸준한 진출의사를 타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일본의 경우 스포츠산업 품목 전체 무역수지 측면에서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에서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스포츠의류와 스포츠신발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스포츠용품에서는 스포츠산업 품목 전체 교역량에 비해 적자 비중이 높다. 이는 주로 골프채 등에서 발생하는 사안으로 일본이 세계적인 골프용품 브랜드를 다수 보유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초정밀 가공제조에 강점을 보유한 일본 제조업이 골프분야와 접목된 결과이며 용품 특성상 이와 같은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결론

최근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온 국내 스포츠산업이 내수시장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여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수출확대가 필연적이다. 국내 스포츠산업 전체 규모에 비해 수출비중이 미미한 현 상황에서 수출확대는 성장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결과 스포츠용품 주요 수출국 간 무역수지는 특정 국가의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노력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민간 차원에서는 우리나라가 축적한 제조 경쟁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의적·혁신적인 제품고안을 바탕으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도록 돕는 정부의 공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Sport Industry SI 포커스

발간목적:

SI 포커스의 발간목적은 국내 스포츠산업 동향에 대한 부문별 심층 분석을 통하여 스포츠산업 부문별 지원전략 및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발행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산업연구실

김상훈(스포츠산업연구실 실장/책임연구위원)

유의동(스포츠산업연구실, 수석연구위원)

정지명(스포츠산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김민수(스포츠산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고경진(스포츠산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신성연(스포츠산업연구실, 연구위원)